

'왕이 된 남자' 에 무릎 꿇은 지상파 월화극, 뭐가 문제일까



월화드라마의 판도를 보면 지상파와 비지상파가 뒤집혀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tvN '왕이 된 남자'가 8%(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 드라마 MBC '나쁜형사'는 6.5%,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6.3% 그리고 SBS '복수가 돌아왔다'는 5.1% 시청률에 머물고 있다.

순비교 하긴 어렵지만, 액면으로만 봐도 지상파 드라마들이 절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장르적으로 봐도 이 구도는 지상파와 비지상파가 바뀐 듯한 느낌을 준다. '왕이 된 남자' 같은 사극은 과거 같으면 MBC 월화드라마의 단골 장르이기도 했었다. 이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 여진구가 이력부터

주목받았던 작품이 바로 MBC '해를 품은 달'이 아니었던가. 반면 '나쁜 형사'나 '동네변호사 조들호2' 같은 장르물은 과거에는 비지상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면이 있다. 영국드라마 '루터'의 리메이크 작품인 '나쁜형사'처럼 유행이 남지 않은 범죄사물은 이 채널이 MBC가 아니라 OCN이라 느껴질 정도다.

과한 '나쁜형사' · 뻔한 '조들호2' · 이상한 '복수가 돌아왔다'

그만큼 드라마에 있어서 지상파와 비지상파의 경계가 깨지고 있다는 걸 월화극들은 보여준다. 그런데 '왕이 된 남자'와 비교해 지상파 드라마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뭘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방영되고 있는 지상파 월화 드라마들은 어딘지 저마의 약점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쁜형사'는 MBC가 19금을 선택할 정도로 야심찬 작품이었다. 드라마 초반의 힘도 나쁘지 않았다. 더 나쁜 놈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나쁜 형사가 되어야 했던 우태석(신하균)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사이코패스지만 과거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은선재(이성)가 독특한 관계를 이어간다는 설정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연쇄살인범 장형민(김건우)이 계속해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긴장감을 떨어뜨리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물론 다시 새로운 사건들을 등장시키며 반응을 노리고 있지만 19금이 갖는 한계 역시 피하기는 어려웠다. 아무래도 채널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고현정과 박신양이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지만 막상 분위기를 열어보

니 뻔한 대결구도를 빼고 나면 흥미를 끌만한 새로운 사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 시즌이 보여줬던 조들호(박신양) 변호사의 사이드라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지상파 월화 드라마를 교차하는 이자경(고현정)의 이상한 행동들 역시 섬뜩하기보다는 너무 흔한 클리셰처럼 보여졌다. 이래서는 연기를 제아무리 잘한 다현들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가장 이상한 작품은 복수가 돌아왔다다. 시청률도 가장 낮고 화제성도 거의 없는 이 드라마는 도대체 학교폭력 피해자로 몰려 퇴학을 당했던 강복수(유승호)가 어찌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복수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빠지는 혼란 구도도 전개되면서 복수극도 멜로도 아닌 이상한 화원들이 되어버렸다. 정체가 모호한 드라마가 잘될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 '왕이 된 남자'도 적지 않은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건 바로 이미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의 리메이크작이라는 점이다.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버전을

바꿔야 하는 난점도 있었다. 하지만 '왕이 된 남자'는 관대 하신(여진구)이 신지수(권혜효)의 아들에게 당한 여동생 때문에 복수의 열망을 갖게 된다는 새로운 설정과, 중전 유소운(이세영)과 점점 가까워짐으로써 그를 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함으로써 이런 약점을 뛰어넘었다. 지금 방영되고 있는 지상파 월화 드라마들의 변면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한때는 드라마왕국이라고도 불렀던 MBC였고, 복합장르물로 비탈을 일으켰던 SBS였으며, 가족물과 시대극 등으로 독자적인 드라마 색깔을 가진 KBS가 아니었던가. 그런 MBC가 19금을 선택하고, KBS는 장르물을 그리고 SBS는 정체가 모호한 작품을 그리고 SBS는 정체가 모호한 작품과 드라마가 가진 위기의식과 인간됨이 느껴진다. 본래 각각의 지상파들이 가진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시도를 하는 균형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쁜형사'는 과하고,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뻔하며 '복수가 돌아왔다'는 이상하다.

2월까지 비수기? 컴백 만큼 주목할 가요계 도움닫기



올해 연초 가요계가 적은 컴백 팀에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컴백 대전 이후, 연말연시 가요계 각종 음악 시상식과 함께 했다. 23일 개최되는 제8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를 끝으로 지난해 가요계를 빛낸 가수들을 위한 음악 시상식 일정들이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 새로운 판이 준비되고 있다. 다만 2월 초 내지 중순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2월 컴백 또는 데뷔 소식을 전한 가수는 아직

위너, 이달의 소녀, 윤지성, 하성운, 효민, 권진아, 헨리 뿐이다. 이들 역시 구체적인 컴백 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각자의 뚜렷한 색깔과 팬덤을 지닌 이들의 2월 활동을 기대할 만 하지만 2월까지 체열출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컴백 팀의 절대적인 숫자로만 비교한다면 다른 때보다 덜 치열하다. 대개 연초는 오래 전부터 비수기로 여겨져왔지만, 올해 2월은 유독 더 적은 팀들의 컴백만 예고됐다. 이처럼 연초 컴백을 피하게 된 가요계 관계자들의 사연이 있을까. 주된 이유는 시상식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음악 시상식이 1월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년도에 활약한 팀들은 시상식 특별 무대와 컴백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시상식에 참석할 만큼 전년도에 뚜렷한 활약을 펼쳤던 가수들은 올해의 새로운 활동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더 완성도 높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인 또한 시상식이다. 보통 연말연시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특별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시기 역시 중요하다. 1년 다(多) 컴백을 준비하는 팀이나 연간 차트를 휩쓸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몇 안 되는 대형 가수가 아니라면 연초

의 앨범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큰 관심을 얻기 어렵다. 컴백 시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연초 컴백을 망설이게 하는 것. 특히 올해 연초에는 대형 신인들의 데뷔가 몰려 있다. 1월에만 RBW의 원어스, 젤리피쉬의 베리베리, FNC의 체리블릿 등이 데뷔했고, JYP의 이지(ITZY), 박히트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또한 멤버를 공개하며 데뷔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위너원 멤버들의 솔로 데뷔도 예고된 상황이다. 컴백을 적지만 그 만큼이나 기대할 만한 데뷔 팀들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의 신인 뿐만 아니라 데뷔 후 첫 1위를 노리는 이들의 컴백도 눈길을 끈다. 청하가 '별써 12시'를 통해 솔로 데뷔 후 첫 음악 방송 1위를 이뤘고, 아스트로 또한 음반 판매량과 음원 순위 등의 지표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첫 1위를 조준한 상황이다. CLC 또한 1위를 목표로 오는 30일 컴백한다. 이들과 함께 연초는 신인들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이를 바라보는 한 가요 관계자는 "누군가는 '빈집'이라고 하겠지만 기간으로 비유할 수 있다. 신인 가수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기성 가수들은 2분기 이후의 대형 컴백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움닫기 기간에도 가요계는 긴장감과 불거리를 다 갖춘 전망이다. 덜 치열하더라도 연초 가요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편' 2월 16일 첫방 확정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선사한 '탐사 예능' MBC '선을 넘는 녀석들'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편을 마련, 다음 달 16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돌아온다. 이번엔 한반도의 '선을 찾는 여정'으로서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다니엘 린데만, 유병재가 출연해 관심을 높인다. MBC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 (연출 정윤정) 측은 23일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이 현재 방영 중인 '언더 나인틴' 후속으로 다음 달 16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선을 넘는 녀석들'은 지난 해 3월부터 9월까지 방송되며 안방극장의 사랑을 받았다.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었던 첫 번째 탐사팀 시작으로 프랑스-독일, 요르단-이스라엘-팔레스타인, 스페인-영국-모로코-포르투갈, 이탈리아-슬로베니아 등 5번의 탐사 끝에

반도 편은 대세 MC 전현무와 검증된 이야기꾼 설민석, 개념 배우 문근영이 전격 합류하며 특급 라인업을 완성했다.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 '진지적 참견 시점' 등을 이끌며 믿고 보는 MC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역사의 한 장면에서 펼쳐지는 그의 특별한 입담과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빼어난 연기력을 갖추고 기부 등 의식 있는 행보로 '개념 배우'로 불리는 문근영의 가세도 눈길을 끈다. 특히 대한민국 강의 넘버원으로 '역사 강의의 신'으로 불리는 설민석이 한국사 이야기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뿐만 아니라 톱일 신배인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과 반전 브레인의 소유자인 케미 요정 유병재가 합류해 이번 여행의 이야기가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 제작진은 첫 촬영 후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멤버 셋의 케미가 굉장하다. 기대해달라"면서 "특히 문근영의 경우 다양한 사극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멤버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선을 찾아가는 특급 행보를 마친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은 다음 달 16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첫 방송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음력 12월 19일)



▶**성운** 뜻한 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 상심하지 말라. 1, 3, 4월생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이 생각한 대로 처리함이 좋을 듯.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가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이 되겠다. 자, 오, 증 성씨는 용기 필요.



▶**사계** 답답함을 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새롭게 각오하는 것이 좋을 듯.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비우고 소신껏 행할 때 새로운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 9, 11월생은 자신감을 갖고 매사에 임하라.



▶**황용** 아무리 서로가 깊이 사랑한다 해도 불륜은 용서받을 수 없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자신이 설 곳은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후회 없는 길을 찾아라. 기, 너, 오 성씨는 가정을 위함이 나를 위한 길임을 알라.



▶**계미** 힘들었던 과거를 한 번쯤 돌이켜 보면서 신중히 처신하라. 모든 불운을 남에게 돌리려고만 하지 마라. 원인을 찾고 새로운 삶을 찾는 자세 필요. 1, 2, 3월생은 검정색을 피하라.



▶**용머** 남들이 보기엔 행복하지만 속으로 울고 있다. 가장 일은 본인들만 아는 일. 그 누가 알겠는가. 기, 자, 표 성씨 중 여자는 마음부터 정돈하라. 흐트러진 자제로 살아가기란 힘들임을 알라. 3, 9, 11월생은 북쪽 사람 힘이 되어 줄 듯.



▶**진미** 기, 오, 증 성씨는 밖에서는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남보다 더 못한 사리로 되어가고 있다. 균형 있는 생활로 돌아오기 어렵다. 떠난 사람 잡지 마라. 지혜와 솔기로 재출발이 요구된다. 범, 뱀, 돼지 띠의 도움 받을 것.



▶**정미** 남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도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헛된 생각, 헛된 망상 속에서 벗어날 때 어두운 구름 걷히고 태양이 빛남을 알라. 1, 3, 7월생은 생각지도 않던 기쁜 소식 있을 듯. 자신감 있게 하는 일 추진하면 좋은 결과 있겠다.



▶**유미** 시야를 넓게 보고 확고한 판단이 설 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5, 7, 12월생은 이미 시작한 것은 그대로 꾸려나가는 것이 좋겠으나 금전으로 힘이 딸린다. 너, 오, 자 성씨는 애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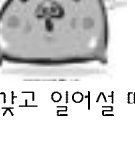
▶**유정** 4, 6, 9, 12월생은 남편과 자녀 문제로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된다. 가장 밖의 일까지 책임져야 하니 여자로서 힘겹다. 기, 너, 오 성씨는 건강에도 주의하고 직장 문제로 고심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겠으니 인내하라.



▶**진정** 무엇을 하든 실속 있는 일을 해야지 득이 없다. 회색만 하고 소득 없이 제자리걸음만 한다고 한탄 마라. 이제라도 마음먹고 재도전하라. 2, 5, 9월생은 변동은 서두르다 손해 볼 듯하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함이 좋을 듯.



▶**유신** 하는 일 풀리지 않으니 부모, 형제, 가정까지 멀게만 느껴지고 항상 혼자 사는 느낌이다.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한탄 마라. 개척은 자신이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힘을 얻어 일어서라. 소, 개, 양띠에 힘을 빌림이 좋을 듯.



▶**계신** 세상에서 자기만이 고독하고 슬픔을 안고 사는 것 같지만 인생길은 너나없이 같은 것. 욕심이 얼마나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취감이 다를 뿐이다. 1, 4, 9월생은 자신을 갖고 일어설 때 북, 서쪽에서 도움 올 듯. 힘을 갖고 전진할 것.